



2005년 12월 19일

영국 공군 전투기 위한 신개념의 지원 계약

세계적인 동력 시스템 업체인 롤스-로이스는 영국 국방성과 브리스톨(Bristol) 공장에서 조립한 EJ200 엔진이 탑재된 영국공군(Royal Air Force: 이하 RAF)의 새로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비행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5,700 만 파운드 상당의 혁신적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.

RAF 가 타이푼의 비행 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EJ200 엔진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롤스-로이스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. 이 계약은 임무준비관리솔루션(MRMS: Mission Ready Management Solutions®)의 빠른 발전이라는 면에서 하나의 주요 이정표가 된다.

MRMS 를 통해 고객들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, 운용 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많은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. MRMS 계약은 현재 롤스-로이스 방위 부문 총 수익의 55%를 차지한다.

신규 타이푼 계약은 2008 년 6 월까지 유효하다. 이 계약은 2003 년에 시작된 기존 계약을 대체하며 광범위한 서비스 등 이전의 지원 수준 이상이다. 엔진 정비 및 예비 구성품 제공과 더불어 롤스-로이스는 산업 공급업체의 네트워크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.

롤스-로이스는 RAF 타이푼 비행중대가 배치되어 있는 RAF 코닝스비(Coningsby)의 타이푼 추진계통 지원 설비시설로 지원활동을 집중시킬 것이다. 그 곳에서 롤스-로이스와 RAF 요원으로 구성된 팀은 항공 운용을 위해 야전급 엔진 지원을 관리하게 되며 또한 일정한 엔진 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.

대부분의 엔진 수리 업무는 브리스톨에 위치한 롤스-로이스사에서 진행되며, 모듈 및 구성품 수리는 코벤트리(Coventry) 근처의 앤스티(Ansty) 소재의 롤스-로이스 공장에서 수행된다.

롤스-로이스 방위 항공우주 부문의 토니 우드(Tony Wood) 상무는 “롤스-로이스는 수년간 기존 엔진에 대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. 이번 신규 계약은 최신 엔진에 대해 똑같은 효과를 가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. 이제 RAF 는 세계 수준의 항공기 지원업무를 위해 세계 수준의 엔진 서비스 솔루션을 보유하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
Note :

1. 현재 19 대의 타이푼이 RAF 코닝스비(Coningsby)에 배치되어 있다. 3 년 계약이 종료되는 2008 년에는 항공기 수가 약 55 기로 늘어날 예정이다.
2. 롤스-로이스는 4 개 부문 글로벌 시장(민간 항공우주, 방위 항공우주, 해양선박 및 에너지)에서 활약하고 있다. 롤스-로이스는 경쟁력 있는 제품 영역 개발을 목적으로 이들 각 부문에서 개척이 가능한 기술과 능력에 투자하고 있다. 연간 매출액은 약 60 억 파운드에 달하며 이 중 55%가 서비스 수입을 차지한다. 현재 주문 예약은 210 억 파운드 이상에 이른다.

문의:

CPR 차유정 이사 02-739-7353 / junecha@icpr.co.kr
추윤희 팀장 02-739-7366 / katechoo@icpr.co.kr
박수진 02-739-7349 / sjpark@icpr.co.kr